

“2000개 여름철 생활용품 저렴하게” 쿠팡, 여름 리빙 페어
쿠팡이 29일까지 '2017 여름 리빙 페어'를 연다. 약 2000개 여름철 생활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특히 여름침구, 모기장, 욕실·세탁용품, 반려·애완용품 등 '카테고리관'을 비롯, 열대야 대비 여름침구용품, 모기 제거를 위한 방충용품 등 주제별로 즐겨찾는 상품을 모아 놓은 '테마관' 등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롯데그룹 '4차 형제의 난' 점화되나

신동주 전 부회장 “명예회복·경영정상화”
롯데전 “부친 앞세워 주총 앞둔 여론몰이”
재계 “어려운 시대 화합하는 모습 보여야”



일본 롯데홀딩스의 정기 주주총회가 임박한 가운데, 신동주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여론전을 재개하며 롯데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15일자 니혼게이자이 신문 기사가 발단이 됐다. 한일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가 6월 말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을 이사직에서 퇴임시키는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 이에 신 전 부회장은 “현재와 같이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롯데그룹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명예 및 국부유출의 불행스런 현상이 원상회복돼야 한다”며 “저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롯데그룹의 경영정상화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며, 현명한 한일 롯데그룹 임직원들도 이에 동참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70여 년 간 기업에 기여한 창업주의 불명예퇴직에 대해 감성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감성적 호소에 더해 현재 횡령·배임과 최순실 게이트의 뇌물공여 기소 등에 걸려 있는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약점을 파고들겠다는 복안도 있다.

이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구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롯데홀딩스 지분은 광운사가 28.1%로 1대 주주에 올라 있고, 이어 종업원지주회가 27.8%, 관계사가 20.1%, 임원 지주회 6% 등으로 구성돼 있다. 50%+1로 광운사의 과반수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종업원지주회만 끌어들이면 50%가 넘는 지분으로 경영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입장. 일본 기업은 경영진의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만큼, 신동빈 회장의 신변문제를 걸고 넘어갈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도 팽배하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신동빈

회장의 기소가 내려지지 않았고,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역시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도덕성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달 24일로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신 전 부회장 본인의 이사 선임 등 안전 제안 후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신 전 부회장의 이러한 주장들(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명예회복과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 경영진과 공모해 신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 해임했고, 롯데 경영권이 일본 경영진에게 넘어갈 상황)은 전혀 새롭지 않다. 최근 2년간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이 있을 때마다 한국 언론을 통해 이 같은 맥락의 주장을 반복해 왔다”고 밝혔다.

이렇듯 롯데 경영권 분쟁이 또 다시 재점화되자 한편에서는 이들 형제의 다툼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최근 롯데그룹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상반기에만 1조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형제의 난으로 벌써 수년째 서로 흠집을 내고 있어 안타깝다. 상황이 난세인 만큼 이제는 서로 화합과 화해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경제현장.jpg

아모레퍼시픽, 국군 장병 메이크업 시연



아모레퍼시픽이 20일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공군회관에서 사회공헌활동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간다’를 열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방부와 함께하는 행사로, 120여 명 국군 장병에게 메이크업 시연 및 체험을 선보였다. 향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게 회사 측 방침이다.

정정욱 기자·사진제공 I 아모레퍼시픽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팝의 요정 초대”

아리아나 그란데 8월15일 고척돔 공연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스물 다섯 번째 주인공으로 아리아나 그란데가 나선다.

8월15일 오후 8시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첫 내한공연인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25 아리아나 그란데’를 여는 것. 아리아나 그란데는 차세대 팝 디바로 평가받는 뮤지션으로, 작은 체구가 무색할 정도로 폭넓은 음악대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한다. R&B와 힙합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음악적 재능을 뽐내고 있으며, 바비 인형을 연상시키는 빼어난 외모로 매우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영국 맨체스터 공연 테러에도 굴복하지 않고 재공연을 펼친 소신과 용기로 유명세를 탔다. 이번 공연은 국내 팬들에게 그의 뛰어난 라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아리아나 그란데

이브 공연을 직접 선보이는 무대여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관객들이 보다 가까이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돌출무대를 설치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현대카드 측은 “탁월한 보컬과 화려한 퍼포먼스 역량을 겸비한 아리아나 그란데는 수많은 국내 팬들이 손꼽아 기다려 온 아티스트”라며 “세계 최정상급의 디바로 성장하고 있는 그의 진면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700억 리뉴얼 오픈

럭셔리 뷔페, 사계절 야외 스파 등 갖춰

부산 해운대 위치한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이 4년간 총 700억원을 투자해 진행한 리뉴얼을 마치고 16일부터 본격 영업에 들어갔다.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은 리뉴얼을 통해 객실 디자인을 전제적으로 교체하고, 7성급 럭셔리 뷔페를 표방한 ‘온 더 플레이트’, 사계절 야외 스파와 수영장, 프리미엄 키즈 체험 테마월드 등을 갖췄다.

모든 섹션을 오픈 키친으로 구성한 ‘온 더 플레이트’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을 비롯해 마카오의 럭셔리 복합 리조트 등 세계 특급호텔의 인터리어를 맡았던 미국 호텔 디자인 그룹 HBA가 설계했다. 지중해 스타일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고, 해운대 바다와 해변을 바라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야외 테라스 다이닝 공간을 갖췄다. 또 특급호텔 최초로 ‘파라다이스 푸드 연구개발(R&D) 센터’을 설립, 식재료 발굴을 위한 컨설팅을 받았다.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전경

야외 오션 스파 ‘씨메르’는 이국적인 해변 리조트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바쿠었고, BMW 키즈 드라이빙, 플레이스테이션, 하바 키즈라운지, 웅진북클럽 등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파라다이스 키즈 빌리지’를 새로 오픈했다.

한편,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은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7월20일까지 디럭스룸, 프리미엄 디럭스, 스위트룸 고객을 대상으로 ‘올 뉴 파라다이스 패키지’를 진행한다.

김재범 기자

팩토리얼 ‘모링가 물티슈’ 화학성분 제로 선언

무독성·무자극 원료…영유아 안심 사용

라베르샤의 새 이름 팩토리얼이 프리미엄 물티슈를 내놓았다.

이 회사는 20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모링가 물티슈’ 론칭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학 성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100% 모링가 발효 추출액’만 함유된 제품으로 영유아 등 누구나 안심하고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동열 팩토리얼 대표는 화학성분을 전혀 넣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물티슈에서 나온 물을 직접 마시는 깜짝 이벤트를 펼쳤다. 무독성·무자극 원료로 먹을 수 있는 물티슈라는 점을 어필하기 위함으로, 이 대표는 “물티슈로 식단 테이블은 물론 수저, 포크를 닦아도 된다”며 “소량의 화학성분을 넣을지 여부를 두고 갈등했지만 결국 타협하지



팩토리얼 모델 김상중(가운데)이 여성 모델들과 함께 ‘모링가 물티슈’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I 팩토리얼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유도하고 열정의 에너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덧붙였다. 가격은 4990원(6매 켄)·1900원(20매 휴대용).

정정욱 기자

모바일게임 ‘리니지M’ 21일 0시 정식 서비스

‘심장 뛰는’ 엔씨, ‘숨 죽인’ 게임시장

매출 3조 PC게임 ‘리니지’ 모바일 구현
사전예약만 550만, 역대 최고 흥행 기대
마켓 1위 ‘레볼루션’과 형제대결도 눈길



‘리니지M’이 드디어 출격했다. 올해 최고 기대작으로 꼽히는 게임으로 국내 모바일 시장에 어떤 파급력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또 현재 왕좌를 지키고 있는 ‘리니지2레볼루션’과의 대결 결과도 관심을 모은다.

엔씨소프트는 21일 리니지M을 국내 출시했다. 한국 PC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대명사격인 ‘리니지’를 모바일로 구현한 게임이다.

리니지는 1998년 출시돼 현재까지 누적 매출 3조원을 넘는 흥행 장수 게임이다. 리니지M은 여러 직업의 캐릭터 뿐 아니라 헬멧, 대규모 사냥, 공성전 등 리니지만의 핵심 요소를 담았다. 아울러 모바일로 변화된 플랫폼에 맞춰 비주얼을 강화하고, 조작 체계도 최적화했다. 다만 이슈가 됐던 거래소 시스템은 출시 버전엔 포함되지 않았다. 7월5일 이전에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리니지M은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시장 공



‘리니지M’ 출시를 알리는 엔씨소프트의 ‘모바일게임 명가’ 입출에 중요한 콘텐츠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진은 ‘리니지M’ 기사 캐릭터. 사진제공 I 엔씨소프트

략에 있어서도 중요한 콘텐츠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모바일에선 인기 콘텐츠를 내지 못했던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말 출시한 ‘리니지 레드나이즈’를 시작으로 ‘파이널 블레이드’, ‘프로야구H2’ 등으로 조금씩 성과를 냈다. 리니지M은 엔씨소프트가 모바일 시장에서

통하는 ‘명가’라는 것을 입증할 게임이다.

업계에선 리니지M이 한국 모바일게임 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성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리니지를 즐겼던 유저 뿐 아니라 모바일 MMORPG를 즐기던 유저까지 모두 끌어 모을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사전 흥행 지표에서도 그렇게 나타났다. 사전예약자가 모바일게임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550만명을 돌파했다. 흥행을 위한 조건은 이미 충분히 마련한 셈이다.

업계의 시선은 이제 앞서 출시돼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을 평정한 형제게임 ‘리니지2’ 기반 레볼루션과의 경쟁으로 쏠리고 있다. 넷마블게임즈가 내놓은 이 게임은 국내 론칭한 달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돌파라는 신기록을 세웠고, 현재도 당대 마켓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선 두 게임 모두 모바일 MMORPG란 점에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리니지와 리니지2라는 조금은 다른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만큼 유저군이 크게 겹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550만 사전예약이라는 숫자로 봤을 때 초반엔 ‘레볼루션’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유저들의 성향이 다를 수 있고, 초반 성과를 계속 이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한국문화관광대전, 뉴욕에서 열린다

22~24일 한류·평창올림픽 알리기

미국의 문화·경제 중심지 뉴욕에서 한국관광과 평창올림픽을 알리는 대규모 행사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2일(이하 현지시간)부터 24일까지 미국의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2017 미국 한국문화관광대전’을 개최한다.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강원도 등이 공동개최하는 행사로 한식 조리 시연, 태권도·한식 페스티벌, 현지 관광업계 간담회, ‘KCON 2017 NY’ 연계 이벤트 등이 열린다.

첫날인 22일에는 사찰 음식의 대가 정관스님이 맨해튼의 고급 레스토랑 ‘르 베르나르맹’에서 미국 40개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 강원도의 산지에서 직접 채취한 더덕, 갑자, 메밀 등으로 만드는 강원도 대표 음식과 사찰 음식을 소개한다. 23일에는 미국현지 태권도교육재단이 매년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개최하는 ‘태권도·한식 페스티벌’에 참가해 한국관광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또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뉴저지 주 푸르덴셜 센터에서 열리는 한류 페스티벌 ‘KCON 2017 NY’에도 참가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gna.com

뉴스디자인 I 이수진 기자

부산 태종대 순환도로 야간 차량통행 허용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태종대가 이제는 야간에 차량을 통해 찾아갈 수 있게 됐다. 부산관광공사는 19일부터 태종대에 야간 차량 개방을 실시했다. 이번에 개방한 지역은 태종대 유원지 순환도로 4.3km 구간으로 차로 태종대 전망대와 등대, 남향 조망지, 태종사 등을 갈 수 있다. 개방 시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이며, 11시까지는 관광을 마치고 나와야 한다. 허용 차량은 승용차, 승차인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다. 태종대 전망대는 순환도로 서남쪽 끝 부근에 위치해 사진찍기 명소로 꼽힌다. 지난해부터 시설 리모델링을 실시해 부산 대표음식이 한 곳에 모인 푸드코트, 바다의 절경을 감상하며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오션라운지 등을 갖추고 있다.

김재범 기자